

5·18전야제, ‘무대-관객’ 벽 허물고 시민속으로

5·18 45주기 앞두고 광주서 민간 추모 행사 다채
전야제, 금남로 4가서 민주주의 열망 ‘다시 한 번’
‘푸른눈의 시민군’ 명예시민증 수여식·학술대회도



5·18민주화운동 45주기를 앞두고 민주주의를 위해 산화한 영령들을 기리는 행사가 다채롭게 열린다.

민간행사의 중심인 5·18 전야행사는 ‘무대와 관객’이라는 구조의 벽을 허물고 항쟁 중심지 금남로에서 광주시민들과 만난다.

‘푸른눈의 시민군’을 향한 명예시민증 수여식, 12·3비상계엄과 시민 저항 정신을 되짚는 민주주의 학자들의 학술 포럼 등이 준비됐다.

11일 제45주기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행사위)에 따르면 이달 한 달 동안 광주 곳곳에서 행사 위가 주관하거나 행사위와 협력·공모를 통해 진행

되는 다양한 5·18 계기 행사가 열린다.

‘아! 오월, 다시만난 오월’을 주제로 열리는 올해 행사는 12·3 비상계엄 이후 광장에서 모였던 민주주의 열망을 5·18 광주가 이어가겠다는 취지를 담았다.

행사위는 5·18 하루 전날인 17일 오월시민난장, 민주평화대행진, 전야 행사 등 ‘오월광주, 민주주의 대축제’를 꾸린다.

지역 극단이 참여해 5·18을 되돌아보는 거리극을 펼치고 국가폭력·재난참사 희생자들의 아픔을 어루만지는 합창단의 공연이 진행된다. 노벨문학상 수상자 한강 작가의 작품 ‘소년이 온다’ 속 등장인물들의

시점에서 5·18을 체험하는 ‘소년의 기억’ 행사도 마련됐다.

시민 공모로 열리는 42개 사업과 전국광역시·도 14개 지역에서 펼쳐지는 청소년 기념행사, 청년 기획사업, 협력사업도 진행된다.

민간행사의 꽃인 전야제가 열리는 무대는 그간 진행돼온 전일빌딩245 앞 삼거리에서 금남로 4가역 교차로로 옮겨진다. 교차로 한복판에 무대를 설치, 일방적 무대가 아닌 4면을 활용해 중심으로 모여 서로를 마주 보는 시민들의 모습을 담는다.

환영의 대축제, 민주주의 대축제, 빛의 대축제 등 3부로 꾸려진 전야제는 광주시민과 예술인 단체들이 총출동한다. 오월어머니들의 ‘님을 위한 행진곡’ 합창과 ‘맨발의 보컬리스트’ 가수 이은미의 공연도 함께한다.

5·18 당일 오후에는 5·18민주광장에 특설무대를 설치하고 민주대성회를 연다. 행사는 1980년 5월23일부터 나흘간 진행된 ‘민주수호범시민광기대회’를 재현, 각계각층 시민들의 의견수렴·자유발언 공간을 마련한다.

민간행사 외 다방면에서도 오월영령을 기리는 행사가 이어진다.

광주시는 오는 14일 오후 광주 동구 전일빌딩245에서 ‘푸른눈의 시민군’ 데이비드 돌린저(David L. Dolinger·72·한국명 임대운)의 명예 광주시민증 수여식이 진행된다. 수여식 이후에는 돌린저가 당시를 회고하며 민주주의의 가치를 전하는 특강을 진행한다.

5·18기념재단은 15일 오전부터 5·18기념문화센터에서 광주민주포럼을 진행한다. ‘2025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어디로?’를 주제로 열리는 포럼에는 국내외 민주주의 학자들이 모여 12·3비상계엄 당시 시민들의 저항 정신, 상설 의제인 ‘이행기 정’ 등을 논한다.

이밖에 오는 17일 오전 10시 5·18민주묘지에서 5·18 45주기 추모제, 20일 오후 3시 광주 북구 무등경기장 일대에서 45년 전 민주주의를 열망하며 거리로 나선 택시기사들을 기리는 ‘민주기사의 날’ 행사가 열린다.

5·18 45주기는 27일 오후 5·18 열흘 간의 항쟁 마지막 순간을 기리고 산화한 열사들을 추모하는 행사 ‘부활제’로 끝을 맺는다.

김수권기자



광주 남부소방, 여성의용소방대장 이·취임식 행사

광주 남부소방서는 9일 CGI 센터에서 여성의용소방대장 이·취임식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선옥기자



담양소방, 부주의 전기화재 예방 캠페인 실시

담양소방서는 봄철을 맞아 증가하는 화재 위험에 대비하고자 부주의 및 전기 화재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담양=박종영기자



강흥경찰, 청사 신축부지 추진 T/F 회의 개최

강흥경찰서는 지난 8일 청사 이전 신축을 위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신축 부지 추진 T/F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서부취재본부



무안경찰, 5월 가정의 달 맞아 '보라데이' 합동 캠페인 실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무안경찰서 여성청소년과와 전남이주여성상담소는 9일, 무안전통시장에서 '보라데이'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무안=이기성기자



화순경찰, 아파트옥상 환경개선 등 주민 맞춤형 범죄예방활동

화순경찰서는 범죄통계 및 112신고를 분석하여 청소년비행 발생지역 등을 중점적으로 방범진단을 실시하고 관내 치안 불안 요소를 사전점검하며 범죄예방 활동을 전개했다.

화순=박순철기자



나주경찰, 한전MCS와 무인방범시설 기증식 개최

나주경찰서는 지난 9일, 세지내 내정1리마을회관에서 지역주민의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한 마을자위방범용 CCTV 기증식 행사를 가졌다.

나주=송준표기자

검찰, ‘강남 중학교 학폭 무마 의혹’ 한동훈 부부 고발 불기소 처분

한동훈 학교폭력예방법 위반 혐의 등 고발 사건

검찰이 서울 강남 한 중학교에서 지난 2023년 발생한 학교 폭력 신고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부부를 불기소 처분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지혜)는 지난 8일 한 전 대표와 부인 진은정씨에 대한 직권남용 관리행사 방해 및 학교폭력예방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을

각하했다.

같은 혐의로 고발된 해당 중학교 교장 이모씨에 대한 사건도 각하했다.

앞서 지난해 4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은 한 전 대표와 진씨, 이씨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바 있다.

지난해 서울 강남 소재 한 중학교가 지난해 5월 발생한 학교폭력 신고 사건 처리 과정에서 ‘은폐·

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사세행 등은 이 사건에 한 전 대표 아들이 관련됐다고 주장했다.

사세행은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전 대표가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사건을 은폐했다고 주장하며 고발했고, 공수처는 지난해 4월 말에 해당 사건을 검찰로 이첩했다.

한 전 대표는 의혹 제기 당시 관련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승호기자



서울시선관위, 대통령선거 투표 참여 캠페인

회 직원들이 투표 참여 홍보캠페인을 하고 있다.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을 하루 앞둔 11일 서울 광진구 서울어린이대공원에서 서울시선관위관리위원

뉴시스